

# ARCHITECTURE

## 세계화시대 국산 박사도 중요하다

김홍식 | 명지대 건축대학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에 하나의 경험치를 남겨야 한다. 건축에 있어 실험이란 설계 시공해 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건축, 철학을 천착해서 우리의 목소리(경험)를 우리의 경관에 조화롭게 지어야(건축)한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설계해 보지도 못한 (외국)건축가들에게 우리의 경관을 도배질하게 한다면, 외국의 설계 사조로 덧씌우기를 한 문화이지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유학파들의 세상

우리나라 해외동포가 거의 천만 명을 육박한다고 한다. 해방 이후 미국에 정착한 동포만도 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가히 폭발적이다. 그 가운데는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물설고 낯설은 데서 고생하면서 살까? 모두들 자식 교육 때문이란다. 심지어 자식 교육을 위해 부모의 고층집은 참겠다는 기러기 가족도 탄생했으니...

이제 세계 곳곳에 유학생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다. 중국, 필리핀, 인도, 심지어 스리랑카까지... 등등. 이중환의 소설 양반전이 생각난다. 청나라를 치고 싶거들랑 양반 자제들을 중국 곳곳으로 유학 보내라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히 폐쇄적이다. 외부인과 별로 섞어서 산 경험이 없다보니 외국인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내성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프리카 후진국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계화 유학파들이 판을 친다. 기업에서도 이들을 요구할 뿐 아니라 대학에도 이들 천국이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에 들어오는 교수 요원들은 모두 외국 유학과 천지다. 국사학과 정도나 국내파가 들어오는데 그들조차도 외국에 연수차 갔다 왔다고 이력서에 적고 있다. 그러니 건축은 외국에 나가서 수학하지 않았으면 애당초 학교에 발 들여놓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 2천 년대 한국 건축학계의 문제점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1960년대는 물론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고 해서 이공계가 꽤 인기가 있었는데 2천 년대에 들어서서는 이공계가 갑자기 시들해졌다. 그렇다고 문화 예술계가 살아난 것도 아니다.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기술에 걸쳐 있는 건축은 IMF 직후까지만 해도 상종가를 쳤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개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

던 듯싶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건축조차 인기가 없다. 건축업이 파리를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가 너무 난립해서 일을 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가 너무 거대화되어 영세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우리 건축설계업은 내외적으로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반면, 안으로는 뒤늦게 후기산업(선진국) 사회에 진입하여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량 생산구조의 산업사회는 종언을 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개발, 혹은 리노베이션을 하던지, 건축 기능보다도 경관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이것은 도시 설계, 부동산 개발,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몇몇의 건축가 군에게 일이 집중되게 되었다. 건축설계에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각 학교에서는 건축설계 교수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건축 기능이나 따지는 구식 교수로는 설계교육이 감당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게다가

세계화 시대 국제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5년제 건축 설계 교육은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모든 대학 건축과가 거의 5년제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능자를 기술자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전문대학은 물론 공과까지 현장 기능인 교육을 등한시한다. 건축현장에서는 벽돌을 쌓고 새벽(미장)을 칠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 남의 것 베끼는 일 그만하고, 직접 실험을 하자.

얼마 전 나는 새로운 목조건축을 설계하고 구조계산을 하기 위해 건축 교재를 들여다봤다. 나무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자료가 일본 것을 베낀 것이었다. 똑같은 나무라도 일본산과 한국산은 쓰임새도 다르고 강도도 틀리므로 반드시 실험치를 써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 근자에는 꽤 지원이 있어서 각 학교마다 실험실 기자재는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다지만, 막상 실험비가 없어서 가동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말하자면 봉사 문고리 잡듯 자기 것은 없고 남의 것을 믿고 베끼는 것 외에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설마 우리 건축계만(응용 학문이므로) 이럴 것이라 믿고 싶다. 황우석 교수 같은 이에게 실험이 없었다면 세계 제일은 절대 할 수 없었으리라.

몇 년 전부터 수도를 옮기겠다고(지금은 행정수도를 위해) 종이 위에 도시계획(설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일은 이들 실무자 대부분이 서양 박사란 사실이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철학도 참고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아 그래!" 하고 뜨내기 풍수지리거나 불러다가 의견을 듣는 정도이다. 나는 우리

창경궁 대은실 전경



나라가 언제부터 독립국가인가 하고 의심한다. 나라의 상징이라는 태극기가 어째서 우리의 것(철학)이라고 우기며, 애국가의 첫 구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이 얼마나 전시대적 발상인가 말이다.

물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앵글로 색슨 문화도 본래부터 자기 문화로만 포장된 것은 아니다. 문화란 원래 양과 같아서 껍질을 벗기다 보면 본디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세계화했을 때는 자신만의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문화 패턴을 갖는다. 300년 전 만주족을 보자. 처음에는 자신들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현판에는 한어와 동시에 만주어를 기록하고 말하곤 했지만, 지금은 만주어를 해독할 수 있는 만주족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보다 앞선 시대, 혹은 다른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체험은 중요시 하지 않은 채 외국 의 실험치를 무작정 베끼기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에 하나의 경험치를 남겨야 한다. 건축에 있어 실험이란 설계 시공해 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건축, 철학을 천착해서 우리의 목소리(경험)를 우리의 경관에 조화롭게 지어야(건축) 한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설계해 보지도 못한 (외국)건축가들에게 우리의 경관을 도배질하게 한다면, 외국의 설계 사조로 덧씌우기를 한 문화이지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먹통이 된 건축교육

많은 사람들이 기러기 아빠의 고통을 감수하며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외국으로 자식을 보내고, 그러지 못

한 사람은 대학원이라도 외국으로 보낸다. 교육비도 비싸지 않고 옛날처럼 나가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잘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도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험도 없고 실험실조차 없으니 외국은커녕 국내에서도 잡지에 발표할, 자기 것이 없는 것이다.

연구대학, 교육대학이라고 해서 전자는 대학원생을 많이 뽑고 후자는 학생들 교육에만 열중하란다. 그러니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인재는 외국이나 명문대학으로 가고, 실험을 하려고 해도 같이 참여할 실험실과 대학원생이 없다. 더구나 사학에서는 대학의 재정을 위해서 돈 많이 드는 실험은 피하고 학벌이나 따가는 학생 채우기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

건축에 있어 실험이란 무엇인가? 직접 집을 설계하고 지어 보는 것이다. 건축 현장에 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최근 외국 교육(세계화) 붐을 타고 이들을 불러온다면 학생 모집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직접 설계(실험)를 하지 않으니 40대가 되면 곧 쓸모없게 된다. 현장에서는 전문교육을 요구하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양공부만 한다.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도 학교 측에서는 실험(현장)이 없으니 가르칠 수 없다. 할 수 없이 사회에서는 다시 전문 분야를 2-3년 더 가르친다.

우리 교육 전반이 문제지만 건축교육도 문제점이 너무 많다. 현장성이 떨어지고 기초 실험이 없는 교육을 하며 직업의 꽃이라는 대학교수도 전부 외국박사만 좋아한다. 그러니 우리 고유의 설계교육은 실험실도 운운자도 없어서 황폐화한다. 정말 우리 것이(국산)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국가인지, 자신의 조형적 정체성은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